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정치 연구

양미경 · 곽태기*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석사과정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요약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통하여 패션(Fashion)과 정치(Politics)가 융합된 패션정치(Fashion Politics)라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정치라는 새로운 학문적 영역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패션정치의 현상을 파악하여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한류열풍에 이은 문화 창출의 기회를 찾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선행논문과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패션과 정치에 관련된 서적탐구를 병행했고, 신문기사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결과는 첫째, 정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축적되어온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패션정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외유내강(外柔內剛) 유형으로 퍼스트레이디 시절에는 엘리전트(elegant)한 스타일,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시절에는 무채색 슈트(suit)로 단정하고 품위 있는 클래식(classic)한 스타일로 연출된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셋째, 패션정치라는 패러다임이 시작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정치철학과 메시지를 담은 패션으로 국내 외 언론과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고, 패션정치가 본격화된 미국순방과 중국순방에서는 방문국가의 대통령이 속해있는 정당이나 국민들이 선호하는 색상을 패션에 적용하며, 박근혜 대통령만의 패션정치 스타일을 창조하여 활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의상인 한복으로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대통령의 품격과 대한민국의 문화와 패션을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패션문화 창출의 기회와 패션산업의 발전에 기여될 수 있기에 본 논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정치를 연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패션정치, 여성정치인, 퍼스트레이디, 패션문화 창출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0세기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우선시되던 하드 파워(hard power) 시대는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대신 감성을 실종시키는 부작용을 야기 시켰다. 이에 반해서 21세기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의 물리적인 발전을 경계해야한다는 의식을 계기로 인간의 감성과 공감 능력을 통한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무력이 아닌 설득과 소통으로 국가적 신뢰와 협력을 얻는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국제정세 및 국내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패션정치 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이후 대중들의 관심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패션정치는, 패션과 정치가 융합된 학문의 영역이자 자연스럽게 형성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이전의 정치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회적 현상으로서 대한민국 헌정 이후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의 탄생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패션정치의 기원을 살펴보면 1948년 5. 10 총선거에 신문광고가 처음 등장했고, 정치 선진국 처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캠페인 전략 차원의 정치광고가 활용된 시점은 1987년의 대통령 선거이다.¹⁾ 직선제가 부활되어 처음 실시된 1987년 선거는 전문 광고회사가 정치광고 제작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전의 정치광고와는 차별화된 광고물들이 제작되기 시작했고²⁾, 차츰 우리나라의 정치커뮤니케이션이 선진화되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자연스럽게 패션정치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후 퍼스트레이디나 여성정치인들의 이미지와 패션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해외방송과 언론에 보도되는 패션정치의 사례들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패션정치의 모방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정치라는 융합학문의 기

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패션정치의 현상을 파악하여 패션산업과 관련업계에 패션문화 창출의 기회를 제시하고, 패션정치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정치가 새로운 문화 창출과 국가 이미지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패션정치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한류문화의 열풍에 대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여성정치인들의 이미지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권태순(2006)³⁾을 시작으로 최근에 발표된 민율미(2013)⁴⁾, 임은숙(2013)⁵⁾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패션정치에 대한 명확한 선행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된 패션정치를 연구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탐색적 조사와 사례연구를 병행했다. 연구방법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학술정보원 RISS를 중심으로 선행논문과 국내학술지를 패션학과 정치학으로 분류하여 분석했고, 신문기사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여 참고했다. 먼저 해외 여성정치인<표 1>, <표 2> 2인과 퍼스트레이디<표 3>, <표 4> 2인의 사례를 연구하여, 패션정치가 패션산업과 국가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각각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성장배경과 정치철학에 관한 분석은 청와대 홈페이지와 관련서적을 탐구했고, 영예시절에서 한나라당 대표시절까지는 취임식 이전의 패션정치<표 5>로 분류하여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패션정치가 본격화된 대통령 취임식패션<표 6>, 미국순방 패션정치<표 7>, 중국순방 패션정치<표 8>의 순으로 정리했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정치의 발생배경과 개념

고대문명의 발상지 이집트는 정치와 복식을 비롯한 종교의 태동지로서 패션정치의 근원지로 볼 수 있다. 이집트의 노예계급들은 거의 나체로 생활하거나 “유의” 라는 끈을 허리에 묶어 의복으로 대신했고, 상류계급들은 천이나 짐승의 가죽 등을 사용하여 의복을 만들어 입었다. 또한 금과 은 등의 재료들로 장신구를 만들어 신분을 과시하거나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패션이 권력의 상징을 나타내거나 개인의 힘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패션과 권력의 관계는 인류의 형성과 함께 구축된 지배계급으로서 과거의 왕권 시대는 붕괴되었지만, 그 자리에 금권주의가 권력의 주제로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과시적 소비는 군주시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에도 부와 권력의 지표가 되었고⁶⁾, 프랑스의 시민혁명과 산업 혁명은 19세기 자본주의의 성장을 가져왔지만, 왕권은 쇠락하고 자본을 축적한 부르주아는 과거 군주 못지않은 재력과 사치스러운 패션으로 그들의 성공을 과시하려는 욕망을 갖게 되었다.⁷⁾ 경찰이나 군인들의 제복에서 무의식적인 공권력을 받아들이거나 위축되는 심리적인 상황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어느 집단에서나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패션이 권력을 상징하는 도구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권력자가 자신의 정치철학을 패션에 담아 활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패션정치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형성되기까지, 시대적 상황과 각 나라마다의 문화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패션정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시대적 기류가 아닌, 정치사회의 필요성에 의한 수요적 가치에 따라 인류사회가 만들어낸 전략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대영제국이후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은 미디어 분야의 발전과 함께 패션정치의 발현 점을 만들어내었는데, 존F 케네디(John F. Kennedy)와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의 35대 미국 대통령의 선거는 패션정치의 초석이 되었다. 지성적인 매력과 출중한 외모를 겸비한 43세의 젊고 건강한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 존F 케네디의 전략적 이미지 연출은 정치적 능력만을 앞세운 리처드 닉슨에게 패배를 안기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다.⁸⁾ 이 선거는 미디어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존F 케네디와 부인 재클린 케네디(Jacqueline Kennedy)는 패션이 정치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증명하였다. 특히 재클린 케네디의 재키룩(Jackie Look)은 세계의 많은 여성들의 스타일 교본으로 활용되며 미국의 패션산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대한민국 패션정치의 발현 점은 제13대 대통령 선거인 ‘노태우 대통령의 보통사람’으로서, 당시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노태우 대통령의 다정하고 인자한 선거 포스터의 사진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보통 사람의 모습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경직되고 딱딱한 군인의 이미지를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로 창조한 선거 전략은 당선으로 이어졌고,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에서는 이미지 전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대형 광고회사들이 정치 광고 제작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전문 스타일리스트(Stylist)들의 영입으로 인하여 정치적 철학과 이념을 반영한 정치인들의 이미지가 창조되면서, 대한민국도 패션정치라는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했다.

2. 여성정치인과 퍼스트레이디의 개념

여성정치인(Woman Politics)이란 자신만의 정치 철학과 정책으로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국가와 관

런된 일을 하는 여성을 말한다.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 서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익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채택한다. 또한 올바른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사람들과의 다툼과 분쟁을 조정하여 갈등을 해소 시킨다.⁹⁾ 대통령을 돕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퍼스트레이디와는 엄격히 구별되며, 정치 사회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철학을 반영하여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정과 평화를 목적으로 한다.

퍼스트레이디(First Lady)는 미국연방법전(USC) 제3편 제105조에 대통령의 배우자(First Spouse)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이나 사교계에서 제1급의 부인 즉 대통령의 부인 또는 주지사의 부인을 지칭 한다.¹⁰⁾ 대통령의 당선과 동시에 자격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퍼스트레이디는 관례상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행하지만, 배우자의 유고나 부재 시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서 냉철한 조언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부재나 대리인의 자격으로 대중연설과 국가의 행사를 주관 할 수도 있다.

3. 여성정치인의 패션정치 구성요소

1) 여성정치인의 의상

매스미디어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치인들의 외적 이미지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이 증가되었고, 정치 광고에 대한 필요성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도래되었다. 정치적인 이념과 철학, 정책 등을 유권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과는 달리, 정치 광고의 또 다른 형태인 패션정치는 언어의 제한성을 뛰어넘어 정치적 입장과 상황 등을 패션에 담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또한 계획된 이미지 전략 외에 의도하지 않은 대중들과 언론의 관

심을 얻는 과급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순간적인 시지각의 압도로 구체화되는 우연성을 발휘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패션의 힘이 극대화될 수도 있다.¹¹⁾ 몸을 가리고 보호하는 일차적인 기능 외에 자아발전은 물론 개인적 가치를 높여주고,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는 자기표현의 절대적 수단인 여성정치인의 의상은 유권자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유행의 속도를 감지하여 적절하게 반영하고, 일관성 있는 정체성을 확립하여 정치철학과 이념을 담아 낼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클래식한 스타일을 기본으로 개성과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연출한다.¹²⁾ 슈트는 단정함과 우아함 그리고 정치적 카리스마를 반영할 수 있는 기본아이템(basic item)으로 블라우스(blouse)와 셔츠(shirt), 베스트(vest) 등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여성정치인에게 적합한 정치적 이미지인 클래식함과 모던함이 동시에 표현될 수 있는 패션정치 스타일을 완성 할 수 있다.

(1) 전통의상

전통의상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고 이어간다는 목적 외에, 국가의 근본과 존속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의상은 스키타이에게 복식문화에 속하는 한복으로서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 차림,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 차림으로 구분되고 있다.¹³⁾ 한복의 독특한 구조선은 고유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색과 디자인의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어 ‘디자인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¹⁴⁾ 한복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디자인의 변천이 조금씩 있었지만 우리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조상들의 감성이 함축되어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국가적인 행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개인적인 대 소사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소중한 문화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디자인과 색상으로 직책을 나타냈고, 갓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양반과 서민의 신분을 구분하는 장치로 활용 되었으며, 값 비싼 비단이나 귀금속 등으로 자신의 권력과 재물의 힘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나라 전통의상인 한복은 감성과 공감의 스토리(story)를 부여할 수 있는 패션문화 창출의 대안과 대한민국의 상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여성정치인들의 다양한 활용과 함께 더욱 발전시켜 세계인에게 널리 홍보되어야 한다.

(2) 색의 상징성과 심미성

색채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색채조절과 요법을 이용하여 성격과 감정을 알아 낼 수 있는 심리적인 측면과 미학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짐작하고 내성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한색, 저명도, 저채도의 색을 사용하기도 하고, 외향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난색,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활용하기도 한다.¹⁵⁾ 개인에게는 각기 어울리는 색이 있어 피부색과 눈동자 색, 머리카락색 등을 분석하여 자신의 색상을 찾아 낼 수 있고, 잘 어울리는 색상의 반응은 잡티가 얇게 보이는 착시현상과 함께 혈색이 좋아 보이고, 얼굴색이 환해 보이는 효과와 인상이 부드러워 보인다.¹⁶⁾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색의 상징성은 색의 분류라는 단순함에서 톤(tone)이라는 개념으로 존재한다. 이는 염색 기법의 발달로 한 가지의 색이 수십 가지의 톤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의 다양한 색중에서 여성정치인의 피부 톤이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고, 속해있는 정당의 특성이 잘 반영된 색상의 톤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또한 해외 순방 시에는 사전에 방문 국가와 국민들의 성향을 조사하여 색과 디자인이 반영되도록 한다.

2) 여성정치인의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Hair style)은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양식의 총칭으로 머리형이나 머리 형태, 머리에

관련된 유행의 경향을 말하며,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과거 시대에는 신분과 권력을 상징하기도 했는데¹⁷⁾, 유럽의 귀족들은 가발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헤어스타일은 두상의 형태와 크기 그리고 얼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컴퓨터 가상 작업을 실시하여 디자인을 결정하는 것이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머리색의 변화는 생동감과 방향감에 대한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헤어의 길이, 커트 스타일, 커트 방법 등에 신중해야 한다.¹⁸⁾ 시술하기 전에 헤어 뒷부분의 머릿속 일부분에 테스트를 실시하여 개인의 모발 상황에 따른 색의 변화를 감지하고, 어깨선을 넘지 않는 길이로 단정하고 품위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드러운 웨이브 펴(wave permanent)<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볼륨매직(volume straight)헤어스타일<그림 6>은 여성정치인에게 적합한 헤어스타일이다. 또한 단정한 커트머리는 길이 조절과 웨이브의 강약 조절에 의해 모던한 스타일<그림 7>, <그림 8>, <그림 9>과 우아하고 부드러운 엘리건트한 스타일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할 수 있다.

3) 여성정치인의 메이크업

메이크업(Make-up)의 사전적 의미는 화장품 또는 수정하다, 보완 하다 의 뜻으로 화장품과 도구를 이용하여 얼굴의 단점을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장점을 부각 시키는 것이 메이크업의 개념이다. 메이크업의 스타일은 계절성과 목적, 상황과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의상의 디자인과 색상에 맞는 메이크업 스타일링(styling)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얼굴의 유형에는 계란형과 원형, 삼각형과 사각형, 역삼각형 등이 있는데, 얼굴의 황금비율을 고려하여 피부 표현을 하도록 한다. 피부 표현은 밝고 투명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피부색과 비슷한 파운데이션(foundation)을 선택하고,

시간과 장소, 상황과 목적에 따라 한톤 정도의 유동성을 발휘하여 멀티(multi)기능이 있는 제품을 얇고 투명하게 펴 바른다. 눈썹을 그릴 때는 좌우 균형에 유의하여 일자형에 가까운 아치형으로 만든다. 부드러운 아치형의 눈썹은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고, 정갈한 이미지를 남긴다. 또한 선명하고 정확한 입술 선은 단정하고 침착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펜슬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입술 라인을 그린다. 또한 눈과 입술은 상대방의 시선이 머무르는 지점으로서 지나치게 원색적인 아이섀도우(eye shadow)나 립스틱(lipstick) 색상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눈이나 입술 중에 한 곳을 지정하여, 포인트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세련되어 보인다. 방송과 사진 촬영을 위한 메이크업은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는 피부톤과 방송 화면에 최상의 효과를 얻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¹⁹⁾ 하지만 여성정치인의 일상적인 메이크업은 자연스러운 피부표현과 정확한 선의 표현으로 이목구비를 부각시키는 윤곽 메이크업이 적합하다.

4) 여성정치인의 액세서리

액세서리(accessory)는 실용적인 액세서리와 장식적인 액세서리로 구분되는데, 실용적인 액세서리는 구두, 핸드백, 장갑, 스카프, 스타킹, 벨트 등이 있고, 장식적인 액세서리는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팔찌, 반지, 모자, 등이 있다. 액세서리의 형태와 크기는 체형과 의상의 디자인에 맞춰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색상과 계절에 맞는 재질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활용된 액세서리는 신체의 단점을 가려주고 자기 방어의 기능적인 역할과 상대편을 공격하거나 막아내는 무기로 활용되기도 한다.²⁰⁾ 영국의 마가릿 대처의 라우더 가방<그림 4>의 사례는 기능적인 역할과 장식적인 역할 모두를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진주

(pearl)는 고결함을 상징하는 천연보석으로 순결함과 정직함을 상징한다. 진주는 경직되고 딱딱한 이미지의 여성정치인을 우아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꿔 줄 수 있다. 또한 단순한 디자인의 의상들을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는 구두<그림 13>, 벨트<그림 14>, 스카프<그림 17>, 브로치<그림 25> 등의 활용은 특별한 패션정치 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는 아이템(item) 들이다.

III. 여성정치인과 퍼스트레이디 사례

1. 해외 여성 정치인 사례

1) 마가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디자인 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임하라! (Design or Resign)’ 라는 슬로건으로 문화와 예술의 부가 가치성을 높이고, 대처리즘이라는 정치적 철학과 이념을 완성시킨 마가릿 대처는 유럽국가 최초의 여성총리였다. 건축 재정과 감세정책 등으로 영국의 실업률을 안정시키고, 외국자본의 유치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외국기업이 영국 내에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²¹⁾ 마가릿 대처는 ‘철의 여인’이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문화와 예술 그리고 패션을 사랑했던 20세기 패션정치를 대표하는 세련되고 지적인 여성정치인이다. 마가릿 대처의 대표적인 패션 아이템은 슈트와 푸시보우(pussy bow), 그리고 핸드백(hand bag)이라고 할 수 있다. 자주색 슈트<그림 1>과 푸시보우 블라우스 위에 매치한 진주는 강력한 여성정치인의 모습을 우아하고 부드럽게 표현해주고 있고, 푸시보우 블라우스와 영국 황실의 공식 색상인 로얄 블루(royal blue) 슈트<그림 2>는 자신이 속해있는 정당의 색상으로 마가릿 대처의 강력한 남성적 카리스마를 표출하고 있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이 주는 슈트의 변화적 요소는 여성정치인의 확고한 이

<표 1> 해외여성정치인(영국)사례

구분	TITLE	마가릿 대처의 패션정치				
IMAGE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출처		http://blog.naver.com/unlabeled?Redirect=Log&logNo=110165827090	http://jeongrakin.tistory.com/2338	http://blog.daum.net/gtrman/15856795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576	http://blog.naver.com/lalagongjoo?Redirect=Log&logNo=120153125911
T. P. O		1984년 런던/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회동	총리시절의 연설	총리시절	핸드 배깅(hand bagging)	영화 『철의 여인』의 한 장면.
패션정치 구성요소의 특징		푸시보우 블라우스와 진주목걸이의 세련된 레이어드 룩(layered look).	로얄 블루(royal blue) 슈트정장과 푸시보우/남성적 카리스마 연출.	웨이브단발머리와 네크라인(neckline)/부드럽고 우아함.	마가릿 대처의 전략적 장치	구두의 높이가 패션의 완성도와 긴장감을 줌.

미지 확립과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이념을 각인시키고 있으며, 브로치와 진주를 이용한 패션 센스는 차갑고 이성적인 여성정치인의 이미지를 당당함과 함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표현되고 있다. 네크라인(neck line)이 독특한 디자인<그림 3>은 마가릿 대처의 길고 아름다운 목선을 부각시키며,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과 정치적 신념에서 오는 단호함이 함께 느껴지고 있다. 또한 밝고 선명한 스카이블루 색상은 분명하고 역동적이다. 영국의 아스프레이(asprey) 사각 핸드백<그림 4>는 핸드배깅(hand bagging)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는데, 핸드배깅이라는 뜻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관철 시킨다”는 뜻으로 2011년 크리스마스 경매에서 25,000유로에 판매되어 자선 단체에 기부되었다. <그림 5>는 마가릿 대처의 생애를 그린 영국 영화 ‘철의 여인’의 한 장면으로 메릴

스트립이 재현한 의상이다. 흰색 라인이 포인트 역할을 하며 단정하고 모던한 여성정치인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적당한 구두의 높이가 긴장감과 패션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다.

2) 힐러리 클린턴(Hikkary Diane Rodham Clinton)

힐러리 클린턴은 제67대 국무부 장관으로서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정치인 이다. 독립적이고 신념이 강하여 독자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했고, 퍼스트레이디시절 남편의 스캔들로 미국 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극도의 자제력과 인내심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특권층의 괴리감을 친밀감으로 전환시켰다.²²⁾ 부지런하고 성실한 힐러리 클린턴은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일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판단하여, 퍼스트레이디 시절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과감한 원색의 사

<표 2> 해외 여성정치인(미국)사례

구분	TITLE 힐러리 클린턴의 패션정치				
IMAGE					
	<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림 9>	<그림 10>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12724	http://www.mfight.co.kr/news/view.php?bcode=1&icode=1&mcode=&scode=&number=6372&keyfield=&key=&page=0	http://www.ft.com/cms/s/2/5df047be-3972-11e0-97ca-00144feabd0.html#axzz2nhmMfB3L	http://www.huffingtonpost.com/2012/10/25/hillary-clinton-fashion_n_2017015.html#slide=1129575	http://soapchat.net/index.php?threads/hillary-clinton-channels-michelle-obama-with-brooch-belt.78548/
T. P. O	이화여대 연설	노스비치 초등학교 방문연설	하원시절	하원시절	페루 방문 (사과 연설)
패션정치 구성요소의 특징	강력한 재킷/ 모던한 헤어스타일	강직한 모습을 완화시키는 노란색 슈트	청록색슈트의 대표적인 힐러리 룩	오렌지색 슈트의 대표적인 힐러리 룩	트위드 재킷과 진주의 매치

용과 여성적인 라인으로 힐러리 룩을 탄생시켰다. 또한 해외순방 시 방문 국가의 문화와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패션에 감성을 담은 전략적 패션정치로 유명하다. 허리라인을 강조한 빨간색 재킷<그림 6>은 각이 살아있는 칼라(collar)에서 자신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모던한 미디엄 쇼트 길이의 헤어스타일은 여성정치인의 진취적이고 당당한 카리스마를 연출하고 있다. 노란색 슈트<그림 7>은 강직하게 연설하는 모습을 부드러운 이미지로 완화시켜주고 있고, 모던한 헤어스타일은 단정하고 단아한 여성정치인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품격이 느껴진다. 라인이 살아있는 청록색 슈트<그림 8>은 힐러리 룩의 대표적인 패션으로서 모던한 헤어스타일과 선명한 색상이 주는 강렬함이 정치적 신념과 함께 여성정치인의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9>의 오렌지색 슈트는 <그림 8>과 함께 힐러리 클린턴의 대표적인 패션정치 스타일이다. 절도 있는 모습과 환한 미소는 내적 이미지를 표출시키며 여성정치인의 이상적인 패션정치 스타일을 완성시키고 있다. 진주 목걸이와 함께 연출된 샤넬 슈트<그림 10>과 긴 생머리는 정치적인 입장을 패션으로 승화시키며 연약한 여성의 이미지로 연출하고 있다. 상황과 목적에 따라 힐러리 클린턴의 패션정치 스타일은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는 물론 국가 이미지 가치를 높이고 있다.

2. 해외 퍼스트레이디 사례

- 1) 미셸 오바마(Michelle Lavaughn Obama)
가격대비 상품가치가 높은 실용적 소비문화를

주도하는 칩시크(cheap chic)패션의 대표주자 미셸 오바마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제2의 재클린 이라 불리우는 미국의 스타일 아이콘이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얻어진 퍼스트레이디의 직위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보다 높은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한다. 또한 국가적 이기심과 인종차별의 벽을 넘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며, H&M, GAP, MANGO, ZARA 등 중저가 브랜드로 대중들과 호흡하는 패션정치를 펼치고 있고, 한지은(2011)²³⁾의 연구에서는 미셸 오바마는 백색량이 적은 색조를 선호하며 주조 색, 보조 색, 강조 색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특정한 색조의 배색을 선호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미디엄 쇼트(medium cut style)의 단발머리는 미셸 오바마의 지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황금색의 화려하고 세련된 퀴임식 패션<그림 11>은 클래식

한 이미지와 단정하고 세련된 여성의 이미지를 조화롭게 표현하고 있다. 흰색 꽃무늬가 수놓아진 황금색 원피스와 코트는 쿠바계의 디자이너 이사벨 톨레도(Isabel Toledo)의 작품이다. 구두와 장갑을 올리브 그린 색으로 통일하여 감각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연출했다. 폼데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의상<그림 12>를 입고, 어린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 참여한 미셸 오바마의 모습은 방송과 인터넷 등에 실시간 검색되며 판매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후 폼데가르송은 글로벌 브랜드로 진입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방송 투데이 쇼에 출현한 미셸 오바마의 검은색 바탕에 흰색 물방울무늬 원피스<그림 13>은 중저가 브랜드 H&M의 의상으로서 폭이 넓은 오렌지색 벨트와 노란색 구두의 활용은 새롭게 창조된 패션스타일로 대중들의 관심과 함께 방송 이후 폭발현상이 생겨났다. 한국계 미국인 패션 디자이너 두리 정(Doo-Ri Chum)의 작품인 보라색 드레스<그림 14>는

<표 3> 해외 퍼스트레이디(미국) 사례

TITLE 구분	미셸 오바마의 패션정치				
IMAGE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출처	http://deborah.tistor.com/590	http://blog.daum.net/mins-pucca/17476514	http://www.vop.co.kr/A00000362981.html	http://radiokorea.com/news/article/article.php?uid=80839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487849&ref=mobile
T. P. O	제44대 대통령 취임식	공식석상	투데이 쇼 출현	한-미 정상 국민만찬	제45대 대통령 취임식
패션정치 구성요소의 특징	황금색코트와 카키색 장갑으로 연출한 클래식과 모더니즘의 조화.	평범한 가디건을 미셸의 시그니처 패션으로 창조.	실용성과 개성이 표현된 칩시크(cheap chic) 스타일	신축성 있는 저지원단의 드레스/크리스탈 장식으로 허리부분 강조.	체크패턴의 감색코트/실용주의적 미국인의 사고 반영.

한. 미 정상 회담을 위한 의상이다. 대한민국 출신 디자이너를 선택해 방문국가에 대한 배려와 화합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남과 북에 대한 평화적 관심을 보여주었다. 남성정장의 타이퍼틴이 들어간 감청색 의상<그림 15>는 신예 디자이너 톰 브라운(Thom Browne)의 작품이다. 무채색의 평범한 원피스 스타일의 코트에 벨트와 부츠, 보라색 장갑의 활용은 미셸 오바마만의 특별한 패션정치 스타일을 창조했다.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의 패션정치 스타일은 가치소비와 신예 디자이너의 발굴로 미국의 패션산업과 세계 여성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2) 평리 위안(Peng Liyuan)

1960년대, 막강한 권력자였던 마오쩌둥의 부인이었던 장칭 사건이후로 중국의 퍼스트레이디들은 그림자 내조가 관례였지만 자유주의 물결을 받아

들인 중국은 평리 위안을 통하여 자본주의적 사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사회의 모든 기사들은 당의 영향력 아래에서 행사되고 있는데, 평리 위안에 대한 관련 기사들도 보이지 않는 당의 암묵적인 지시 아래 출판되고 있다.²⁴⁾ 중국의 신화통신은 ‘새로운 역할과 국제적인 무대가 펼쳐지게 될 평리 위안은 아동, 부녀, 노인 등 인민들의 제일의 부인이 될 것 이다’라고 전망했으며, 평리 위안의 이미지에 대한 미래를 예측 보도하고 있다.²⁵⁾ 화려하지만 기품이 넘치는 평리 위안은 2013년 3월 2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중국 시진핑(Xi Jinping) 국가주석과 동행하며 세계 언론을 집중시켰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과 단아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모던한 트렌치코트<그림 16>는 사회주의 국가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는 세련된 모습이다. 중국의 전통의상인 치파오<그림 17>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보라색 스카프와 매치했는데, 이

<표 4> 해외 퍼스트레이디(중국) 사례

구분	TITLE	평리 위안의 패션정치				
IMAGE						
출처		<그림 16> http://blog.daum.net/dancho/290	<그림 17> http://www.koreafashion.org/	<그림 18> http://daehansinbo.com/ezview/article_main.htmlno=19344	<그림 19> http://blou.daum.net/ducho/290	<그림 20> http://blog.naver.com/nocutceo?Redirect=130164664878
T. P. O		러시아 순방	러시아 순방	아프리카 순방	탄자니아 순방	탄자니아 순방
패션정치 구성요소의 특징		감색코트와 스카프의 연출/ 모던한 스타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치파오.	전통문양이 은은하게 표현된 화이트 슈트	중국도자기 문양의 자수가 입체적으로 표현된 재킷.	중국의 문화와 전통을 담아 새롭게 디자인된 치파오

의상은 동양의 문화가 담긴 이국적 정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으로 품질현상이 생겨났다. 하얀색 슈트<그림 18>은 하늘색 스카프로 시진핑 주석의 넥타이와 커플 룩을 완성하며 다정함을 과시했다. 또한 여성스럽고 우아한 의상에 비해 다소 사이즈가 크게 느껴지는 핸드백이지만 실용성과 기능성을 장점으로 디자인된 중국의 수제품으로 알려지며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중국 도자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전통 문양이 삽입된 재킷<그림 19>은 수작업(hand made)으로 오랜 시간 소요되어 완성되었다. 특별함을 선호하는 현대인의 문화적 감성코드를 접목시켜 제품의 질이 좋지 않다는 중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20>은 치파오의 앞부분을 절개하여 응용되어 디자인된 코트 스타일 슈트는 황금색의 은은함과 부드러운 카멜색이 어우러져 우아한 핏리 위안의 자태를 더욱 품위 있게 만들어 주고 있다. 세계의 경제를 빠른 속도로 장악하고 있는 중국은 문화와 예술의 부가가치성을 미래의 대안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1세기의 경제 대안으로 핏리 위안의 패선정치를 활용하고 있다.

IV. 박근혜 대통령의 패선정치 연구

1. 취임식 이전의 패선정치

1) 박근혜 대통령의 성장배경과 정치철학

1952년 경상북도 고령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삼 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 성심 여중, 고를 거쳐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프랑스의 그로노블 대학에서 유학하던 시기에 어머니의 서거소식을 듣고 귀국했다. 개인의 아픔을 뒤로하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곁에서 예측하지 못한 여성정치인의 길을 수련하

게 되었다. 아버지 고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을 시작으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경제개발 5개년을 수립하여, 고속도로는 물론 기업을 육성하여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전자공업을 지원하여 발전시켰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단 시간에 고속 성장시킨 아버지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탁월한 지도력과 정치적 안목을 터득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환경적 요소로 인하여 자신만의 정치적인 신념과 철학을 무의식중에 세워갈 수 있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전적 기질인 추진력과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를 일으키는 외교력,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근검 절약정신과 온화한 미소, 기품 있는 자태 등은 박근혜 대통령만의 내적이미지를 형성시킨 환경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²⁶⁾ 육영수 여사에 이은 아버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는 청와대를 떠나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칩거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책을 통한 자아성찰을 통해 인내와 절제를 터득했고, 요가와 명상으로 강인한 체력과 삶에 대한 겸허함을 알게 되었다. 1997년 대한민국은 국가부도 위기의 경제 상황으로 빠져들며 대량 실업사태라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들의 자살 율이 급등하기 시작하고, 기업들은 도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기에 나라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나라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²⁷⁾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대의 기류에 흔들리지 않는 소신 있는 정치,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창조경제를 만들어 국민들의 행복과 안정이 보장되는 대한민국, 변화와 희망 그리고 미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것을 정치적 비전으로 삼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정치인의 길로 입문하였다.

2) 취임식 이전의 패션 이미지

<그림 21>은 스포츠를 즐기는 밝고 건강한 박근혜 대통령의 영애시절의 모습이다. 파란색 체크 셔츠와 스커트 그리고 두건의 매치가 1960년대 유행하던 레이디라이크 룩(Lady like look)스타일이다. 레이디라이크 룩은 숙녀처럼 입기라는 뜻이다. <그림 22>는 한복을 즐겨 입던 육영수 여사의 품격 있는 모습이다. 손에든 장갑과 클러치(clutch)를 들고 있는 모습에서 뛰어난 패션센스가 느껴지며 단아한 올림머리는 격조 있는 고상함이 전해진다. 육영수 여사의 품위 있는 자태와 온화하지만 강직해 보이는 얼굴<그림 23>의 선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대로 유전되었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어조와 경청의 자세까지 어머니를 본 받아 기품 있는 자태가 형성되었다.²⁸⁾ 박선영(2009)²⁹⁾의 연구 결과

에 의하면 박근혜 의원은 헤어스타일(75%)이 가장 잘 부각되는 외적 이미지로 나타났고, 향후 보완 이미지를 알아본 결과로는 메이크업(42%)으로 나타났다. 의상(38%)은 무채색과 함께 흰색, 노란색, 파란색, 녹색등 다양한 색상의 의상을 입었지만, 주조 색과 보조 색은 저명도의 무채색과 저채도의 노란색 계열, 강조 색으로는 흰색과 빨간색 계열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³⁰⁾ 또한 중후한, 인상이 좋은, 지적인, 호소력이 있는, 의 이미지 평가는 높은 반면에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 평가는 낮게 나타났다³¹⁾ 영애시절과 퍼스트레이디 시절에는 밝고 화사한 원피스를 즐기는 로맨틱한 스타일과 엘리전트한 스타일이 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시절에는 꽃무늬 스커트를 입은 여성적인 모습<그림 24>과 무채색 위주의

<표 5> 취임식 이전의 패션정치

TITLE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정치				
구분					
IMAGE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	<그림 25>
출처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212220100132630010957&ServiceDate=20121222	http://twitaddons.com/addons_plus/detail.phpidx=320046	http://news.donga.com/3/all/20120621/47180400/1	http://okfashion.co.kr/index.cgi?action=detail&number=26411&thread=81r18	http://okfashion.co.kr/index.cgi?action=detail&number=26411&thread=81r18
T. P. O	영애시절 (청와대에서 가족들과의 여가시간)	고 육영수 여사 (국가행사 참여)	퍼스트레이디시절 (국가행사 참여)	국회의원 시절 (업무수행)	대통령후보시절 (업무수행)
패션정치 구성요소의 특징	1960년대의 패션 레이디라이크 룩 (Lady like look)	단아한 올림머리와 한복의 자태	육영수 여사를 연상시키는 모습	여성스러운 스타일	무채색슈트 (전투복 패션.)

슈트<그림 25>를 입은 남성적인 모습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시기의 박근혜 대통령의 패선은 ‘전투복 패선’이라고 평가 받기도 했다.

2. 대통령 취임식 이후의 패선정치

1) 18대 대통령 취임식 패선정치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통의상인 한복과 정장을 T. P. 0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주며, 국정에 대한 정치적 소신과 메시지를 패선에 담아 대중들의 관심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취임식 행사의 첫 번째 의상은 보온성이 뛰어난 검정색 누비 외투<그림 26>로 실용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소박하고 간편한 서민적인 모습을 연상시켰다. <그림 27>의

카키색 코트는 군인들이 입었던 군복에서 디자인이 착안된ミリ터리 룩이다. 안보와 평화를 상징하며 전투 시에는 위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색으로서 남성적인 이미지에 여성적인 라인을 가미한 중성적 이미지의 스타일링이다. 이는 이전의 남성 대통령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새로운 형식의 리더십을 예견하고 있다. 금색단추는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고, 보라색 스카프는 평화와 통합을 의미하며, 나비 브로치는 자유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한복<그림 28>은 태극문양을 상징하고 있다. 겨울이 가기 전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희망의 전령사인 매화처럼, 남북한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

<표 6>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패선정치

TITLE	박근혜 대통령의 패선정치				
구분					
IMAGE					
	<그림 26>	<그림 27>	<그림 28>	<그림 29>	<그림 30>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8&aid=00030021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8&aid=00030021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8&aid=0003002132	http://korean.china.org.cn/2013-02/27/content_28071789.ht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14786
T	대통령 취임식 2013. 2. 25.	대통령 취임식 2013. 2. 25.	대통령 취임식 2013. 2. 25.	대통령 취임식 2013. 2. 25.	대통령 취임식 2013. 2. 25.
P	국립 서울 현충원	국회의사당	광화문 광장	청와대	청와대
O	국가 유공자와 선열들에 대한 예도.	국가 안보와 리더십 표현.	국민들과 함께한 취임식 축하공연.	대통령 취임식과 기념행사 이후의 청와대 업무.	외빈 접대
패선정치 구성요소의 특징	올 블랙(all black) 패선으로 실용성과 기능성을 나타냄.	밀리터리 룩을 재 해석한 A라인 코트/중성적인 이미지 표현.	태극문양을 상징/두루마기의 매화는 희망을 상징.	녹색계킷과 진주목걸이/안정된 이미지.	빨간색과 자주색의 조화가 우아함과 강렬한 카리스마를 동시에 나타냄.

고 싶은 간절한 희망의 메시지를 패션으로 전하고 있다. 녹색 재킷<그림 29>은 안정과 평안을 의미하며, 검은색 바지는 권위를 상징한다. 재킷의 칼라(collar)와 포켓스퀘어(pocket square)에 활용된 검은색 벨벳(velvet)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소재로 여성 대통령의 품격과 우아함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믿음과 신뢰로 일관성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신념, 국정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기 위하여 정직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진주 목걸이를 선택하여 간접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국민들과 함께했던 취임식 행사를 마치고 외빈을 접대하는 자리에서는 빨간색과 자주색이 조화를 이룬 한복<그림 30>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존의 모습

을 각인시켰다. 빨간색은 예로부터 왕을 자주색은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다.

2) 미국순방 패션정치

2013년 5월 5일~10일까지의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은 외교활동과 경제협력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함께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구촌 번영을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미국 순방 패션은 대통령 취임식 의상과는 차별화된 색상과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의미하는 올리브 그린 색 재킷<그림 31>을 입고 서울공항에 모습을 보인 박근혜 대통령은 안정적

<표 7> 미국순방 패션정치

TITLE 구분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정치				
IMAGE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	<그림 34>	<그림 35>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id1=&oid=003&aid=0005128906	http://news.sportsseoul.com/read/ptoday/1274096.htm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535803&ctg=10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971888	http://arthurjung.tistory.com/367
T	미국순방 2013. 5. 5.	미국순방 2013. 5. 6.	미국순방 2013. 5. 7.	미국순방 2013. 5. 7.	미국순방 2013. 5. 7.
P	서울공항(출국)	미국 의회의장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기념박물관	만찬장
O	미국 순방	미 의회 합동연설	한 미 정상회담	한 미 동맹 기념만찬	한 미 동맹 기념만찬
패션정치 구성요소의 특징	올리브그린과 청록색의 색 밝고 경쾌하다.	흰색의 포인트 요소들이 격식과 품위를 나타냄	시그니처 스타일의 오버사이즈(over size) 재킷	미색과 옥색의 조화/은은한 전통미 표현.	무궁화가 새겨진 미색저고리/화려하고 우아한 절제된 미.

이고 평화적인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회색 슈트<그림 32>의 의미는 옹고 그림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신념으로 급변하는 21세기를 대처하고 글로벌 시대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자는 메시지를 패션으로 전하고 있다. 신뢰와 희망을 뜻하는 파란 재킷<그림 33>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속해있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이다. 방문 국가의 대통령이 속해있는 정당의 색상을 사용하여 정치적 공감과 이해를 패션에 담았다. 상아색 두루마기 한복<그림 34>는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고, 무궁화 도안을 화려하게 수놓은 미색 저고리와 옥색치마<그림 35>는 한

미 동맹 60주년 기념 만찬장을 빛내며 우리나라의 전통의상의 아름다움을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복 패션은 오랜 역사를 통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패션문화를 온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과 함께 역사적 자긍심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3) 중국순방 패션정치

한. 중 수교 21주년을 기념하는 중국순방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적 성과를 위한 여정이었다. 영토와 역사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의 미묘한 갈등이 있는 아시아의 정치적 상황과 북한의 도발가

<표 8> 중국순방 패션정치

TITLE 구분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정치				
IMAGE					
	<그림 36>	<그림 37>	<그림 38>	<그림 39>	<그림 40>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62710178214173	http://www.pressbyp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77	http://www.pressbyp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77	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21&DCD=A00302&newsid=02148406602870256	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21&DCD=A00302&newsid=02148406602870256
T	중국순방 2013. 6. 27.	중국순방 2013. 6. 27.	중국순방 2013. 6. 28.	중국순방 2013. 6. 28.	중국순방 2013. 6. 29.
P	서두우 공항	인민대회장	간담회장	오찬장	칭와대 (Tsinghua University)
O	첫 인상을 좌우하는 공항패션	인민대회장 환영식	경제사절단 조찬 간담회 / 한. 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	시진핑 주석 주최 특별 오찬장/ 재중 한국인 간담회	칭와대 연설/ 코리아 애프터사찰 및 진출기업 간담회
패션정치 구성요소의 특징	애국심이 담겨있는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패션	남성정장 스타일의 레몬옐로우 재킷과 브로치의 활용.	재물을 상징하는 빨간색 재킷/ 강력한 카리스마 연출.	라이크레이디 (like lady)스타일.	중국 칭와대를 상징하는 보라색 재킷

능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야 할 정치적 난제들이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경제와 정치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택한 중국순방은 시진핑 주석과의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한 공감과 이해의 감성외교를 위하여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의상을 총 아홉 벌 준비했다. 그 중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흰색 바탕에 두 줄의 검은색 출국 의상<그림 36>은 애국심과 조국에 대한 자긍심이 담겨져 있다. 흰색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정화하는 색으로 숭고함과 정직함 그리고 깨끗함을 의미한다. 또한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경제적인 협력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의지를 패션정치 스타일로 완성했다. 또한 중국의 황제를 상징하는 황금색을 피한 황금색의 변조색인 노란색 재킷<그림 37>은 상대 국가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중국과의 동등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 기능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주머니가 달려있는 디자인은 노란색이 전달하는 밝고 화사한 느낌이 미래지향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중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빨간색 인민복 스타일<그림 38>은 방문국가의 문화적 공감을 얻는 효과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인 신뢰를 바탕으로 친밀감과 우정을 표시하고 있다. 열매모양의 브로치는 두 나라의 외교적 성과를 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핑크색 의상<그림 39>는 여성스러운 분위기와 파티에 알맞은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주최한 오찬장에서 함께한 평리 위안과의 만남 또한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으로, 우아하고 온화한 여성의 느낌이 장점으로 표현되고 있다. 칭와대(Tsinghua University)를 상징하는 보라색 재킷<그림 40>을 입고 중국어로 연설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통령이라는 중국 언론의 평가와 칭와대 학생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한국과 중국의 호혜적인 관계와 양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중국 순방은 패션이 정치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정치에 대한 언론과 대중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대한민국 헌정이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의 탄생은 패션정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시켰다. 해외 여성정치인과 퍼스트레이디의 패션정치 사례를 알아본 후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정치를 연구한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와 예술을 국가 경쟁력으로 여겼던 마가릿 대처는 패션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며 패션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라인을 살린 원색의 슈트로 힐러리 록을 완성시킨 힐러리 클린턴의 패션정치는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는 물론 국가 이미지 가치를 상승시켰다. 마가릿 대처와 힐러리 클린턴의 공통점은 남성적인 강인한 모습과 여성적인 우아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미국의 패션 아이콘으로 불리우는 미셀 오바마는 SPA 브랜드로 가치소비를 주도하며 세계 패션산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평리 위안은 중국의 문화를 패션에 담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퍼스트레이디인 미셀 오바마와 평리 위안의 공통점은 강인함보다는 여성스럽고 우아한 엘리건트한 스타일이 패션정치의 주를 이루고 있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의 유년시절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으로 나타났으나 청년시절의 시련을 거치며, 외면은 부드럽고 내면은 강인한 외유내강(外柔內剛)유형으로 변화되었다. 퍼스트레이디 시절에는 여성적이고 우아한 엘리건트한 스타일,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시절에는 무채색 슈트로 단정하고 품위 있는 클래식한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으나, 엘리건트한 스타일과 로맨틱한 스타일 등의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셋째, 대한민국에 패션정치라는 패러다임을 형성시킨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패션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메시지를 담아 국내 외 언론과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다. 패션정치가 본격화된 미국순방과 중국순방에서는 방문국가의 대통령이 속해있는 정당의 색이나 국민들이 선호하는 색들을 패션에 도입하여 박근혜 대통령만의 패션정치 스타일을 완성해 나갔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패션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과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성대통령의 품격은 문화적인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강력하고 원칙적인 이미지 뒤에 숨겨진 이면의 부드러움과 따뜻하고 역동적인 이미지가 표현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패션정치 스타일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정서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정치는 해외사례와는 다르게 패션 브랜드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취임식 이후 언론에 공개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이미지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실시간 확산되어 패션정치라는 헤드라인으로 대중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한류열풍이 한국의 문화를 알렸듯이 국가 이미지 상승의 패션외교로서 패션이 외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태양의 왕 루이14세는 디자인과 패션이 국가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일찍이 깨닫고, 예술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프랑스의 패션이 세계를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외국 패션정치의 사례들은 대한민국의 현실과 상황에 맞는 패션정치로 새롭게 창조되어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정치를 계기로 KOREA 라는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하는 길이 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의 한계성은 사진자료만으로 패션정치 스타일을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미지 자료는 허상에 가까운 사실적 표현으로서 원단의 질감과 색상의 톤 등을 판단하는 것은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

다. 또한 지면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해외 사례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가 다소 부족했음을 밝힌다. 본 논문을 계기로 여성정치인들의 사례들이 다양한 각도와 시각으로 분석되어,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연구로 이어져 패션정치가 융합학문으로서 관련 학계는 물론 패션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1) 김춘식 (2005). 대통령선거와 정치광고, 서울: 한국방송공사 출판 사업부, p.4.
- 2) 위의 책, p.4.
- 3) 권태순 (2006). Fashion Look 유형에 따른 여성정치인의 외모 이미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7-70.
- 4) 민율미 (2013). 여성정치인의 패션이미지가 정치적 능력이미지와 유권자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외모 관심도, 연령,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27.
- 5) 임은숙 (2013). 21세기 여성 정치리더 6인의 패션에 나타난 색채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41.
- 6) 김성복 (2004). 이미지 시대 패션과 정치, 한국영상문화학회지, 9(-), pp.50-61.
- 7) 위의 책, pp.62-69.
- 8) 한지은 (2011). 미셸 오바마의 패션 색상연구-패선정치의 관점에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1(1), pp.91-92.
- 9) 이제영 (2013). 2012 여성대선후보 정치인 이미지에 관한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8(-), p.147.
- 10) 이민정 (2007).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 11) 박종성 (2010). 패션과 권력,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p.3-235.
- 12) 최미경 (2003). 정치인의 이미지가 미디어 상에 나타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6.
- 13) 김문자 (2004). 고대한복의 원류 및 세계화속의 한복의 위치, 한국문화학회지, 7(1), pp.8-10.
- 14) 위의 책, pp.12-14.
- 15) 김유순, 박선희, 신명자, 한명숙(2004). 스타일리스트를 위한 이미지 메이킹, 서울: 도서출판예림, p.129.
- 16) 위의 책, p.129.
- 17) 김현정의 (2010). 우리나라 여성정치인의 헤어스타일 연구, 한국미용예술학회지, 4(1), p.88.
- 18) 위의 책, pp.89-91.

- 19) 권태순. 앞의 책, p.62.
- 20) 김민선 (2004). 여성을 위한 자기 방어용 악세사리 디자인에 관한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 21) 조주홍 (2009). 여성정치 리더십의 유효성에 대한 고찰-남녀리더십 비교연구 문헌과 여성 정치 리더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3.
- 22) 위의 책, p.55.
- 23) 한지은. 앞의 책, pp.94-98.
- 24) 박일근 (2013). 중국 시진핑 시대의 평리 위안 띄우기, 관훈 저널지, 127(-), p.134.
- 25) 위의 책, p.136.
- 26) 이계영 (2012). 박근혜의 꿈, 서울: 도서출판 상상예찬, pp.68-129.
- 27) 박근혜 (2007).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경기: 위즈덤 하우스, pp.171-177.
- 28) 이계영. 앞의 책, pp.101-107.
- 29) 박선영 (2009). 여성 정치인의 외적이미지 지각실태와 기대 이미지 연구-박근혜 의원과 추미애 의원을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2-39.
- 30) 이미숙 (2012). 국내 여성정치인의 패션이미지 분석-색채 특성과 배색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4), p.343.
- 31) 박선영. 앞의 책, pp.73-75.

A Study on the Fashion Politics of President Park Geun-Hye

Yaung, Mee Kyeng · Kwak, Tai Gi⁺

Master candidate, Dept.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Abstract

Recently in our society a new paradigm, called fashion politics, which melds together fashion and politics, is forming fast throughout the internet and the other types of media.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the provision of basic data for the new academic territory of fashion politics, and understanding the current situation of our fashion politics and looking for the right direction to seek a chance of cultural creation focusing on the Korean wave. The method of study is searching books related with fashion and politics, focusing on the leading treatise and domestic journals, and collecting data by searching newspapers and internet portal sites. In the contents of the paper, firstly fashion politics is already found to be applied effectively on the basis of historical facts and cultural grounds in politically developed countries. Second, like an iron hand in a velvet glove, President Park Geun-Hye deliberately appeared in an elegant style as the first daughter, and in a classical style with natty and elegant neutral suits as an assemblywoman. Thirdly, at 18th President inauguration, when the paradigm called fashion politics star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dia and populace focused on the political philosophy and message in President Park Geun-Hye's fashion. When visiting China and the US, her fashion politics accelerated, and she created and used her own style of fashion politics, applying the colors which are favored by the political party of the presidents of the visiting country or the populace there. The president especially played the role of a cultural as she made Korean culture and fashion, and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of the Hanbok well known. Since the phenomenon of fashion politics can affect culture creation and impact the economy, this paper tries to study the fashion politics of Park Geun-Hye.

Key words: fashion politics, woman politician, first lady, creation of fashion culture